

Handball KOREA

핸드볼코리아

2024년 1·2월 제68호



H LEAGUE
언더독의 반란,
그래서 더 흥미로운 H리그
신한 SOL페이 23-24 핸드볼 H리그 중간점검

INTERVIEW
인천도시공사 심재복이
뭉쳐야 찬다에 출연한 이유
그리고 라스트댄스

FEATURE
2024 청룡의 해는 나의 것!
용띠 선수들이 전하는 새해 소원은?

2024 CALENDER
반등 절실한 한국 핸드볼
2024년이 중요한 이유

WORLD CHAMPIONSHIP
올해는 파리다!
한국 여자핸드볼, 세계선수권 성적·성과 분석

COVER STAR

인고의 시간 뚫고, 한국 핸드볼 뉴아이콘으로
서울시청 우빛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미래의 길을 잇는 반도체 SK하이닉스로부터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 기술로
ICT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Handball

핸드볼코리아

KOREA

C O N T E N T S

2024년 1·2월 제68호



02 2024 CALENDER

반등 절실한 한국 핸드볼
2024년이 중요한 이유

04 H LEAGUE

언더독의 반란, 그래서 더 흥미로운 H리그
신한 SOL페이 23-24 핸드볼 H리그 중간점검

10 H LEAGUE

누가 잘할까?
기대감 가득했던 외국인 선수들 중간 성적표

14 COVER STAR

인고의 시간 뚫고, 한국 핸드볼 뉴아이콘으로
서울시청 우뚝나

20 FEATURE

2024 청룡의 해는 나의 것!
용띠 선수들이 전하는 새해 소원은?

22 INTERVIEW

인천도시공사 심재복이 뭉쳐야 찬다에 출연한 이유
그리고 라스트댄스

28 WORLD CHAMPIONSHIP

올해는 파리다!
한국 여자핸드볼, 세계선수권 성적·성과 분석

30 ASIAN CHAMPIONSHIP

남자핸드볼에 위기가 찾아왔다
세계선수권 '물거품'

32 TEAM

꿈나무 선수 5명 포진
하남동부초, 2023년을 지배하다

36 NEWS & READERS COMMENTS

핸드볼 뉴스 및 독자의견

제작협찬



발행일 2024년 2월 5일 | 통권 68호 | 정보간행물 등록번호 송파 다 00018 발행인 및 편집인 안지환
기획 정규오 편집 (주)제이앤제이미디어 발행처 (사)대한핸드볼협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SK핸드볼경기장 3층
TEL 02-6200-1414 FAX 02-420-5337 E-mail handball_pr@sports.or.kr Homepage www.handballkorea.com



반등 절실한 한국 핸드볼

2024년이 중요한 이유

2024년은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해다. 특히 올해는 한국 여자 핸드볼에게 매우 중요한 한해다. 세계 핸드볼의 변방으로 전락한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선 올해 더욱 분주한 한해를 보내야 한다. 올림픽,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대회 일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24년 각종 대회 일정들을 살펴본다.
글. 서호민 기자



제24회 세계주니어여자선수권대회

06.19~06.30 | 북마케도니아

제17회 아시아주니어여자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주니어 여자 선수권대회 티켓을 따낸 한국 여자 주니어 대표팀은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북마케도니아에서 열리는 제24회 세계주니어여자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2년 주기로 열리는 이 대회

에서 한국은 2014년 크로아티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준우승 3회, 3위 5회를 기록했다. 2년 전, 러시아 대회에서는 19위에 그쳤다. 이번 대표팀은 지난 2022년 북마케도니아 세계여자 청소년핸드볼 선수권대회 우승 멤버가 대거 출전할 예정이며, 한국은 '약속의 땅' 북마케도니아에서 다시 한번 우승 도전에 나선다.



2024 파리올림픽

07.26~08.11 | 프랑스 파리

한국 여자핸드볼이 파리올림픽에서 반등을 노린다. 여자핸드볼은 지난해 구기종목 사상 첫 11회 연속 올림픽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최근 여자핸드볼은 침체에 빠져 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는 일본에 패했고, 세대교체를 염두에 둔 세계선수권에서도 아쉬운 성적을 남겼다. 당장 오는 7월 열리는 파리올림픽도 걱정스럽지만, 마냥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선수권을 거치면서 우뚝나, 정진희(이상 서울시청) 등 젊은 선수들의 기량이 한층 물올랐다. 10년 동안 한국대표팀 부동의 에이스로 활약하던 류은희(교리)에게 파리올림픽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올림픽 무대다. 그만큼 류은희는 명예회복, 그리고 메달 사냥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12개국에 주어지는 본선무대 출전권을 확보한 나라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앙골라, 브라질,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6개국이다. 이 외 참가국은 오는 3월 열리는 최종예선을 통해 정해진다.



제10회 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U18)

08.14~08.25 | 중국

한국 여자핸드볼 유망주들이 또 하나의 '우생순 신화'를 꿈꾼다.

2022년 북마케도니아에서 열린 제9회 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이 중국에서 열리는 제9회 세계여자 청소년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한국은 2년 전 북마케도니아 대회에서 김민서(삼척시청), 이혜원(부산시설공단) 등이 주축을 이뤄 사상 처음으로 청소년선수권 정상에 올랐다. 이는 비유럽 국가 최초의 우승이기도 했다. 독일과 스위스, 슬로바키아(이상 조별리그), 네덜란드, 루마니아(이상 결선리그), 스웨덴(8강), 헝가리(4강), 덴마크 등 유럽 팀들을 상대로 8연승을 거두며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는 점에서 더욱 대단한 업적으로 남았다. 이제 동생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또 다른 신화를 노린다. 한국은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등과 함께 아시아 대표로 나서 유럽 강호와 우열을 가릴 예정이다.



제10회 아시아청소년 남자선수권대회

08.25~09.03 | 이란

한국 남자주니어대표팀이 제10회 아시아청소년남자선수권대회 2연패 도전에 나선다. 아시아청소년남자선수권대회는 20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로 올해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이란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2년 전 바레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당시 장인의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한국은 최지환(원광대), 이민준(경희대) 등이 우승 주역으로 활약했다. 참고로 한국은 역대 아시아청소년남자선수권대회에서 2005년과 2014년, 2022년 총 3번의 우승을 거둔 바 있다. 또 1번의 준우승, 3번의 3위를 기록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10.11~10.17 | 경남 고성

전국체육대회가 올해로 어느덧 105회 째를 맞이하게 됐다. 제 105회 전국체육대회 일반부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고성에서 열린다. 최근 2년 간 남자부는 '리그 최강' 두산과 인천도 시공사가 번갈아가며 우승할 정도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 여자부는 신흥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삼척시청과 서울시청이 최근 2년 간 우승을 나눠가졌다. 리그 전초전으로 열린 전국체전에서 어떤 팀이 우승할지 팬들의 기대감이 크다.

2024년 대회 일정(안)

연번	사업명	기간	장소	주최
1	제21회 아시아남자선수권	바레인	2024.01.11 ~ 2024.01.25	국제핸드볼연맹
2	2024 협회장배 전국초등학교대회	강원 태백	2024.02.16 ~ 2024.02.21	대한핸드볼협회
3	2024 협회장배 전국중고등선수권대회	경남 고성	2024.03.23 ~ 2024.03.29	대한핸드볼협회
4	2024 대학통합핸드볼리그	강원 태백	2024.04.13 ~ 2024.04.21	대한핸드볼협회
5	제79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	강원 삼척	2024.04.20 ~ 2024.04.28	대한핸드볼협회
6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미정	2024.04.27 ~ 2024.04.28	대한체육회
7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남 무안	2024.05.24 ~ 2024.05.28	대한체육회
8	제15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대회	강원 삼척	2024.06.01 ~ 2024.06.01	대한체육회
9	제24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U20)	북마케도니아	2024.06.19 ~ 2024.06.30	국제핸드볼연맹
10	제21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	강원 태백	2024.07.09 ~ 2024.07.17	대한핸드볼협회
11	제18회 아시아남자주니어선수권(U20)	사우디아라비아	2024.07.20 ~ 2024.07.29	국제핸드볼연맹
12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	프랑스 파리	2024.07.26 ~ 2024.08.11	국제올림픽위원회
13	제10회 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U18)	중국	2024.08.14 ~ 2024.08.25	국제핸드볼연맹
14	제32회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	경북 구미	2024.08.23 ~ 2024.08.29	대한체육회
15	제10회 아시아남자청소년선수권(U18)	이란	2024.08.25 ~ 2024.09.03	국제핸드볼연맹
16	2024 핸드볼코리아 전국중고선수권대회	경북 김천	2024.08.31 ~ 2024.09.06	대한핸드볼협회
17	2024 전국대학통합선수권	미정	2024.09.01 ~ 2024.09.01	대한핸드볼협회
18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경남 고성	2024.10.11 ~ 2024.10.17	대한체육회
19	제16회 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대회	미정	2024.10.26 ~ 2024.10.27	대한핸드볼협회
20	제9회 김중하배 전국꿈나무대회	강원 횡성	2024.11.21 ~ 2024.11.26	대한핸드볼협회
21	제15회 재단이사장배 전국교육대학선수권대회	미정	2024.11.23 ~ 2024.11.24	대한핸드볼협회
22	제20회 아시아여자선수권	미정	2024.12.01 ~ 2024.12.01	국제핸드볼연맹

※ 경기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핸드볼, 올해는 몰라요!’ 언더독의 반란, 그래서 더 흥미로운 H리그 신한 SOL페이 23-24 핸드볼 H리그 중간점검

지난해 11월 화려하게 막을 올린 신한 SOL페이 23-24 핸드볼 H리그가 한창이다. 정규리그 일정 남자 2라운드 여자 1라운드를 마친 상태. 이에 휴식기를 맞아 리그 중간점검을 해보려고 한다. 시즌 판도는 어느 정도 갈렸을까. 글. 서호민 기자 사진. 핸드볼협회 제공

SK슈글즈의 독주 속 경남과 서울의 약진 여자부 판도

‘무결점’, ‘견고하다’. 7년 만의 통합 우승을 노리는 SK슈가글라이더즈의 올 시즌을 설명하는 가장 알맞은 단어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SK슈가글라이더즈는 23-24 핸드볼 H리그 개막을 앞두고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 작업에 나섰다.

SK슈가글라이더즈는 국가대표 주전 센터백 강경민을 영입하며 전력을 대폭 강화했다. 강경민은 19-20시즌, 20-21시즌, 22-23시즌 등 최근 4년간 세 번이나 정규리그 MVP에 선정된 국내 여자 핸드볼의 간판 선수다. 지난 시즌 부산시설공단과 트레이드로 데려온 피봇 강은혜와 올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 레이(일본)에 강경민까지 가세해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됐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SK슈가글라이더즈는 유력한 우승 후보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SK슈가글라이더즈는 8경기를 치른 현 시점에서 7승 1패(승점 14점)로 1위를 질주 중이다. 1월 24일, 부산시설공단에 시즌 첫 패를 당하기 전까지 개막 7연승을 질주하는 등 파죽지세의 기세를 이어갔다. 공수에 조화가 완벽하다. 부산시설공단은 8경기에 229득점, 187실점으로 골득실 1위(+42)를 기록하고 있다. 팀 득점은 229득점으로 리그 2위에 올라 있다.

강경민과 강은혜, 유소정 등 96년생 동갑내기 트리오의 활약이 눈부시다. 강경민과 강은혜, 유소정은 개인 득점 10위 안에 들어 있다. 강



올해 불타오르는 경남개발공사의 상승세는 더 놀랍다. 경남개발공사는 만년 하위팀 이미지가 강하다. 최근 5년간 리그 하위권을 맴돌았다. 22-23 시즌(7위), 21-22 시즌(6위), 20-21 시즌(8위), 19-20 시즌(5위), 18-19 시즌(7위) 내내 하위권이였다. 그랬던 경남이 180도 바뀌었다. 경남개발공사는 현재 6경기에서 5승 1패(승점 10)를 기록하며 1위 SK 슈가글라이더즈(7승, 승점 14)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핸드볼계에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경남개발공사는 올 시즌을 앞두고 팀에 새롭게 합류한 국가대표 출신 센터백 이연경(5경기 37골-어시스트 21개)이 뛰어난 리더십과 공격력을 선보이며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연경의 합류로 부담감이 줄어든 다른 공격 선수들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팀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기에 베테랑 골키퍼 오사라가 든든히 골문을 지키고 있다. 지난 시즌 4승 1무 16패(승점 9)를 기록한 경남개발공사는 1라운드도 끝나기도 전에 이미 지난 시즌 쌓은 승수와 승점을 넘어서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경남개발공사의 돌풍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구조화 이룬 인천도시공사 선두 질주
내친김에 창단 첫 우승까지?**

올 시즌 남자부 키워드는 '타도 두산'이다. 윤경신 감독이 이끄는 두산은 코리아리그 최강으로 군림했다. 8연패를 이룬 '절대 1강'이다. 올 시즌도 강력한 초대 챔피언 후보로 꼽힌다. 두산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는 인천도시공사가 꼽힌다.

지난 시즌 코리아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두산을 패배 직전까지 몰고 가며 괴롭혔던 인천도시공사는 올 시즌 강력한 전력 보강으로 스쿼드를 강화했다. 그 결과 인천도시공사는 9경기를 치른 현재 7승 1무 1패(승점 15점) 1위를 달리고 있다. 올 시즌 인천도시공사의 이 같은 상승세에는 정수영, 윤시열, 심재복으로 대표되는 베테랑들과 이요셉, 김진영, 진유성 등 젊은 선수들의 신구조화가 비결로 꼽힌다. 베테랑들은 매 경기 큰 기복없는 플레이로 연승을 주도했다. 경기 중 후반들이 다소 흔들리더라도 다시 다독이며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

이중 '불혹' 정수영의 활약은 놀라울 정도다. 나이를 무색케하는 폭발적인 활약으로 올 시즌에도 득점과 어시스트 등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다.

베테랑들이 제 몫을 해주자 어린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힘을 내고 있다. 스페인리그를 거쳐 올 시즌 팀에 합류한 김진영도 공수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불의의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라 전력에서 이탈한 건 약재 중 약재. 든든한 지원군도 가세한다. 지난 1월 말, 올시즌 1라운드 MVP 이요셉이 상무피닉스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소속 팀으로 돌아왔다.

이와 같이 두산의 독주 체제를 깨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인천도시공사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조화로운 모습을 보인다면 창단 첫 우승을 바라볼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경민이 54골로 팀내 1위고 유소정이 45골, 강은혜가 41골로 뒤를 잇고 있다. 어시스트 부문은 유소정이 40개로 리그 2위, 강경민이 34개로 3위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레프트백 송지은이 부상에서 회복해 예전의 기량을 되찾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최근에 연승 행진이 중단됐지만 팀 분위기는 최고조에 올라 있다. 여기에 더욱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 SK슈가글라이더즈는 2-3라운드 선두 입지를 확실히 굳히고자 하는 모양새다.

1위 아래에 있는 팀들의 약진도 놀랍다. 2위 서울시청과 3위 경남개발공사의 승점은 단 1점에 불과하다. 한 가지 놀라운 건, 서울시청과 경남개발공사 두 팀 모두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탈락 팀이라는 점이다. 서울시청은 최근 중하위권에 머물렀지만 개인 플레이에서 벗어나 점차 조직력을 가다듬으며 올 시즌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강력한 공격력은 서울시청을 지탱하는 힘이다. 9경기에서 237득점 평균 26.3득점을 기록 중이다. 센터백 우빛나는 득점(73골), 어시스트(43개) 2개 부문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며 서울시청의 상승세 중심에 있다.



**구관이 명관 vs 뉴 페이스
정규리그 MVP 경쟁은?**

치열한 순위 싸움만큼이나 MVP 경쟁도 불이 붙고 있다. 여자부에선 서울시청의 새 에이스로 떠오른 우빛나, SK슈가글라이더즈의 중심 강경민이 MVP에 가장 가까운 선수들로 평가받고 있다. 올 시즌 정규리그 MVP를 논할 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우빛나다. 우빛나는 올 시즌 대부분의 지표에서 커리어 하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등으로 쌓은 경험치가 빛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팀의 확실한 주 득점원으로 거듭났으며 어시스트 능력도 탁월하다. 우빛나의 성장이 없었다면 올 시즌 서울시청의 약진은 어렵지 않았을까. 그만큼 독보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우빛나는 득점 부문 리그 1위, 어시스트 부문 리그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득점의 경우, 2위와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큰 부상이 없는 한, 생애 첫 득점왕 수상이 유력하다. 득점에 이어 어시스트 부문에서도 1위에 오른다면 MVP 경쟁에서도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강경민은 MVP 경험이 많은 선수다. 19-20시즌, 20-21시즌, 22-23시즌 등 최근 4년간 세 번이나 정규리그 MVP 영광을 안았다. 올 시즌에는 SK슈가글라이더즈로 팀을 옮겨 빅3의 중심으로 활약 중이다. 팀의 득점원이자 클러치 상황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해결사다. 컨디션의 업다운도 크게 없고 득점을 포함한 어시스트 능력도 리그 톱 레벨 수준이다. 강경민은 득점 부문 리그 2위, 어시스트 부문 리그 2위에

올라있다. 강은혜, 유소정과 호흡이 좋고, 나머지 선수들도 강경민을 믿고 자신 있게 플레이한다. 이적 첫 시즌이었지만 적응기조차 필요 없이 SK슈가글라이더즈 핵심 선수로서 맹활약하고 있다. 여자부에선 우빛나와 강경민이 독보적인 MVP 후보로 꼽히는 반면, 남자부에는 후보가 많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MVP 이요셉(인천도시공사)은 2시즌 연속 MVP에 도전한다. 득점, 어시스트 부문에서 상위권에 올라있는 이요셉은 1라운드 MVP로도 선정됐다. '뉴 페이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먼저 두산이 올 시즌 9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면 김연빈이 MVP에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5년차 라이트 백 김연빈은 유망주 꼬리표를 떼고 이제는 알을 깨고 나와 팀의 주축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김연빈은 9경기에 나와 53득점에 27어시스트에 돌파득점도 10개(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문별 순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없지만 고른 활약이 두드러진다. 이요셉과 더불어 인천도시공사 선두 질주의 중심에 서 있는 '큰 형님' 정수영도 MVP 후보로 거론될 만하다. 올해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정수영은 어시스트 1위, 공격포인트 2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나이를 잊은 듯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과연 강경민과 이요셉 등 기존 팬들에게 익숙한 인물들이 올 시즌에도 MVP를 수상할까. 아니면 뉴 페이스들이 활약을 이어가 기존 선수들의 득세를 막을까.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깜짝 MVP 등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MVP 경쟁이 더욱 뜨거워진다.



**'슈퍼루키 2인방'의 신인왕 경쟁
제대로 불붙었다**

MVP만큼이나 수상자를 가리기 어려운 부문이 바로 '신인왕'이다. 여자부 신인왕은 임서영(인천광역시청)과 조은빈(서울시청) 2파전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아직 최종순위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두 선수 모두 새내기임에도 불구하고 팀의 득점을 도맡아 당당히 이름 석자를 알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 신인드래프트 전체 4순위로 지난해 주니어대표에 선발되기도 했던 임서영은 순발력과 과감한 플레이로 인천광역시청 문필희 감독의 눈에 들었다. 임서영은 올 시즌 주로 레프트백으로 출전, 32득점 13어시스트 45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체격조건이나 플레이 센스 등을 고려했을 때 대형 레프트백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다. 이에 맞서는 조은빈은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서울시청에 지명, 곧바로 팀의 주전 센터백 자리를 꿰차 올 시즌 서울시청 상승세 숨은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조은빈은 26득점 18어시스트 44공격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어시스트 수치에서도 드러나듯 패스, 날카롭고 센스 넘치는 돌파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경기 운영을 아쉬워했던 서울시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임서영과 조은빈은 지난 1월 20일 맞대결서 각각 6골, 10골을 기록, 나란히 맹활약을 펼치며 흥미를 더하기도 했다. 여자부 신인 선수들이 리그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지만 남자부는 이 흐름의 무풍지대에 있다. 신인드래프트 1순위 강준구(인천도시공사) 포함한 신인 선수들이 쉽지 않은 리그 적응기를 거치고 있다. 🏐



SIDE STORY

**'가는 길이 곧 역사'
H리그에 쏟아진 의미있는 기록들**

뜨거웠던 순위 경쟁과 별개로 그 가운데서 의미 있는 기록들도 쏟아졌다. 서울시청 센터백 권한나는 지난 1월 14일 광주도시공사와 1라운드 경기에서 역대 최초로 통산 1300점을 달성했다. SK슈가글라이더즈 강경민은 1월 11일 경남개발공사와 1라운드 경기서 통산 900점(역대 3호) 금자탑을 쌓았다. 또한 경남개발공사 베테랑 오사라 골키퍼는 1월 27일 인천광역시청과 2라운드 전에서 15세이브를 기록, 역대 세 번째로 1600세이브를 달성했다. 남자부에선 인천도시공사의 만형 정수영이 12월 3일, 두산과의 1라운드 경기에서 한국 핸드볼 사상 최초로 600개의 어시스트를 돌파했다. 이외에 국가대표 골키퍼 상무파닉스 박재용은 지난 12월 9일, 인천도시공사와 1라운드 경기서 9개의 세이브를 추가하며 역대 6번째로 800세이브 기록을 달성했다.

누가 잘할까? 기대 가득했던 외국인 선수들 중간성적표

신한 SOL페이 23-24 핸드볼 H리그가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 치달고 있다. 핸드볼 리그 특성상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높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매 시즌 각 팀들은 취약 포지션을 외국인 선수로 채우며 전력을 살뜰히 보강하고 있다. 올 시즌 H리그에는 총 5명의 외국 선수가 코트를 누비고 있다. 1~2라운드를 마친 외국선수들의 중간 성적표는 어떨까.
글. 서호민 기자



유누스오즈무슬



😊 아주 좋아요

코스타조아나(부산시설공단) /RB
8경기 13득점 12어시스트 25공격포인트 6블록슛
유누스오즈무슬(SK호크스) / GK
9경기 2어시스트 89세이브 36.03%방어율

과거부터 외국 선수를 잘 선발하고, 활용하기로 유명한 부산시설공단은 올 시즌에도 2명의 외국인 선수를 선발했다. 올 시즌에는 에스토니아 국가대표 몰토바 알리나와 앙골라 국가대표 코스타 조아나가 새롭게 합류했다. 그중에서도 라이트 백 조아나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진 조아나는 패스 능력도 갖추고 있어 동료들을 살려주는 플레이에 능하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능

력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팀 수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기록에서도 드러난다. 조아나는 8경기 13득점 12어시스트 25공격포인트 6블록슛을 기록 중이다. 부산시설공단 강재원 감독은 "(조아나) 공수 양면에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수비 능력이 뛰어나다. 팀 수비의 맥을 짚어주고, 수비에서 공헌도가 크다"고 조아나의 수비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조아나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건, 바로 '적응력'과 '프로 의식'이다. 최근에는 발목 부상을 안고 있음에도, 경기 출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강재원 감독은 "발목 부상을 당해 휴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경기에 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본적으로 열정과 파이팅이 강한 선수다. 또, 성격도 쾌활해 적응력도 좋은 편이다. 조아나의 뛰어난 프로 의식이 어린 선수들이 많은 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칭찬했다.

올 시즌 기존 주축 선수들의 이적에 부상자가 속출하며 전력이 약화된 부산시설공단은 현재 2승 4패로 7위에 머물러 있다. 팀 사정이 좋지 않지만 조아나는 군말없이 공수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타적인 플레이에 능해서 팀 입장에서는 딱 맞는 선수라 할 수 있다. 특별히 튀는 기량도 아니고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갖춘 건 아니지만 조아나가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플레이로 팀의 중심을 잡아준다면 하위권에 처져 있는 부산시설공단도 후반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실함의 아이콘' SK호크스 베테랑 골키퍼 유누스오즈무슬은 한국에서 2년 차 시즌을 맞고 있다. 1년 차인 지난 시즌 유누스는 주전보다는 백업 골키퍼에 가까웠다. 그만큼 출전 기회도 많지 않았는데 올 시즌에는 누가 뭐라해도 유누스가 SK호크스 주전 골키퍼다. 유누스는 방어율 36.03%로 리그 5위를 기록 중이다. 포르투갈 출신

누노 알바레스 신임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 하에 꾸준히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고 공격수의 움직임이나 슛 타이밍이 빠른 한국 선수들에 완벽히 적응한 것이 올 시즌의 맹활약의 원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유누스는 "감독님이 바뀌고 2년 차를 맞아 한국 선수들의 특성에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미래를 전망했다. 매 경기 신들린 선방쇼를 바탕으로 경기 MVP에 뽑히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유누스는 올 시즌 벌써 두 차례나 경기 MVP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SK호크스가 선두 인천도시공사를 25:24로 1점 차 누르고 신승을 거뒀던 지난 12월 13일 경기에서 무려 16세이브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유누스를 비롯해 김희수, 지형진 등 각기 다른 스타일의 골키퍼가 고루 활약하고 있는 SK호크스는 12경기를 치른 현재, 5승 2무 2패로 남자부 3위를 기록, 플레이오프 진출에 희망적이다.

만족과 불안 사이

몰도바알리나(부산시설공단) /LB
8경기 32득점 3어시스트 35공격포인트
시미즈아이카(광주도시공사) /CB
8경기 11득점 9리바운드 20어시스트

둘 다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쉽지 않은 듯하다. 부산시설공단의 경우가 그렇다. 한 명은 잘하는데 나머지 한 명의 기량이 올라오지 않고 고민이다. 앞서 소개한 조아나는 다방면에서 제 몫을 하고 있지만 기대했던 알리나의 활약은 다소 아쉽다.

알리나는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포르투갈 등 다양한 리그를 거쳐 성장했다. 특히 2022년에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자신의 소속팀 'SL 벤 피카'를 우승으로 이끌며 MVP를 차지했다. 2018-2023년에는 5년 연속 '에스토니아 여자 핸드볼 최고 선수'에 뽑히기도 했다. 커리어만 놓고 보면 남부럽지 않다. 하지만 낯선 새 리그에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강점으로 통하고 있는 득점력, 중거리슛 능력은 뛰어나지만 팀 플레이에 쉽게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알리나가 공을 잡았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정체해 있다는 점이다. 공을 잡지 않은 선수

의 움직임이 활발해야 유기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설공단은 알리나가 공을 잡으면 나머지 선수들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모습이 잦았다. 어찌 보면 부산시설공단이 갖고 있는 '알리나 딜레마' 라고 할 수도 있다.

강재원 감독은 "아직까지 알리나가 한국 리그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리그마다 특색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한국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빠른 데다 몸 싸움을 즐겨한다. 반면, 유럽 선수들은 몸을 활용해 부딪히는 플레이를 잘 안 한다. 리그 차이점에 고전하고 있는 것 같다. 팀 플레이에서도 자잘한 실책이 많다"며 "다만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페널티는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알리나가 하루 빨리 리그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알리나가 가진 중압감은 분명 위력적이다. 하지만 아직 부산시설공단은 알리나 활용법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높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부산시설공단이 풀어야 할 과제다. 물론 조아나가 잘하고 있지만 부산시설공단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알리나의 활약이 필요하다.

광주도시공사 센터백 시미즈 아이카는 언니들의 애정 속에 한국 핸드볼 적응기를 보내고 있다. 2002년생, 일본 국적의 아이카는 오이타고를 졸업하고 무코가와 여대에서 뛰었다. 신장 151cm로 신장이 작은 선수

지만 타고난 경기 센스와 스피드가 강점이 있다. 하지만 경기 경험이 부족해 시즌 전 기대치는 크게 높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카는 팀 내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틈을 타 최근 들어 출전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

아이카는 8경기를 소화한 현재, 11득점 9리바운드 20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주전과 벤치를 오가며 운영을 포함한 공격에 보탬이 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오세일 감독은 "원래 세컨 옵션으로 생각하고 데려온 선수인데 팀 내 부상자가 많다보니 최근에는 주전으로 올라와 기용하고 있다. 경기 센스와 스텝은 타고난 선수다. 다만 신장이 작은 데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워 하는 점이 있다"고 아이카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이제 막 신입생 딱지를 뗀 22살의 어린 선수다. 경기 출전 횟수를 늘려가면서 계속 경험치를 쌓아야 한다는 게 오세일 감독의 견해다.

오세일 감독은 "그래도 시즌 초반에 비하면 리그에 많이 적응한 상태다. 지금 현재로서 경기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즌 전에 기존 팀원들과 손발을 맞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를 뛰며 손발을 맞춰야 한다. 많은 것들을 주문하기보다는 1대1 위주 플레이 등 단순한 것들을 위주로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분발해주세요

레이(SK슈가글라이더즈) / RB
8경기 1득점 3어시스트 4공격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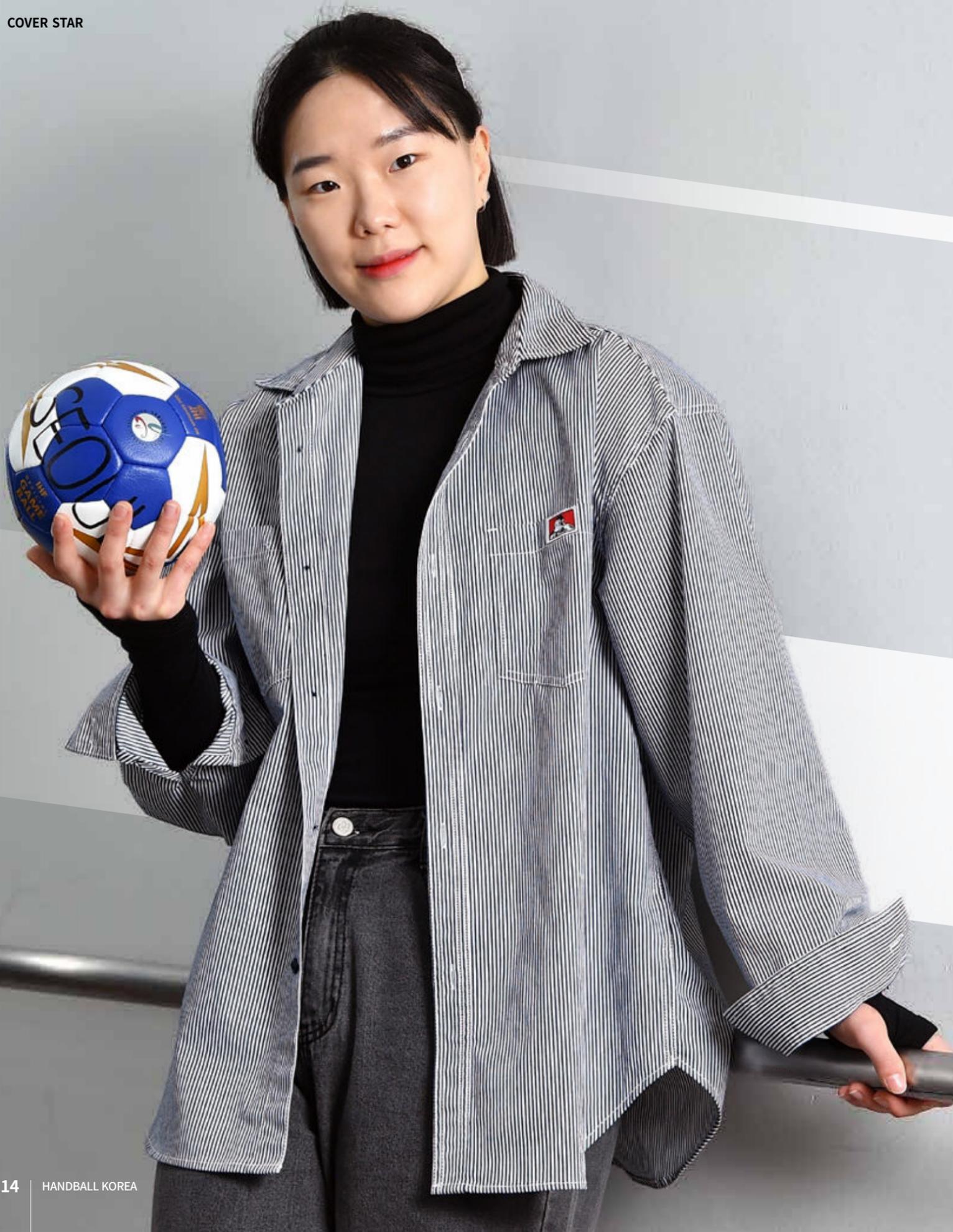
SK슈가글라이더즈 일본인 라이트 백 레이는 일본 국가대표에 발탁됐을 정도로 기량을 인정받은 선수다. 그는 SK호크스가 자매결연을 한 오모론과 합동 훈련을 하다가 영입된 사례다.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과 안정적인 경기운영을 해주길 기대했다.

SK슈가글라이더즈 김경진 감독은 "7명의 선수가 뛰는데 포지션마다 백업 선수들이 있어야 체력적인 면이나 로테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다. 수비에서 많이 움직여야 하고, 속도가 많이 하다 보면 체력적인 소모가 많이 되니까 그때 로테이션으로 바꿔줄 수 있는 멤버를 구성하려고 생각했다. 국내에서는 왼손잡이 선수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지난해 7월에 우리 팀에 와서 일주일 정도 훈련하는 거 보고, 또 우리가 전지훈련 가서 하는 거 보고 우리 팀에 합류해도 되겠다 싶어서 영입했다"고 레이를 영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레이의 활약은 미미한 정도다. SK슈가글라이더즈가 워낙 선수층이 두꺼운 탓도 있지만 레이의 경기 감각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레이의 경우, 귀한 왼손잡이에 라이트 윙은 물론 라이트 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응력이 쌓인다면 좀 더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름값 높은 외국선수의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이름값 보다 중요한 것은 리그의 특성 파악과 적응이다. 이는 올 시즌 외국선수 중간 성적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과연 개인의 활약과 더불어 소속 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칠 이는 누가될지, 앞으로 외국 선수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





인고의 시간 뚫고, 한국 핸드볼 뉴아이콘으로 서울시청 우빛나

여자 핸드볼 대표팀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센터백들이 모여 있기로 유명하다. 최고의 센터백으로 평가 받는 강경민을 시작으로 돌파에 능한 이연경, 어시스터 김민서까지. 여기에 또 한명의 선수가 유망주 꼬리표를 떼고 대표팀의 주전 센터백 자리를 꿰차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서울시청 센터백 우빛나. 지난 12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빛나의 분전은 부진 속 한 줄기 희망이 됐다. 우빛나는 계속해서 성장의 계단을 오르며 H리그에서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리그 5년 차를 보내고 있는 우빛나는 올 시즌 코트에서 화려하게 춤추고 있다. 42골 32어시스트 74공격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공격 지표 대부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우빛나의 활약과 함께 서울시청의 팀 성적도 덩달아 신이 났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서울시청은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리그 단독 2위에 올라있다. 지난 1월 중순, 서울시청의 '어엿한 주축'으로 성장한 우빛나를 만났다. (*기록은 1월 18일 기준)
글. 서호민, 송현일 기자 사진.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첫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아쉬움 속에 얻어낸 소득**

Q. H리그 개막 후 서울시청의 상승세가 눈에 띄어요. 그 중심에는 우빛나 선수가 있는데요. 득점(1위), 어시스트(1위)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표에서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어요. 요즘 하루 하루가 행복할 거 같아요.

무엇보다 (정연호) 감독님께서 시즌 전부터 선수들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대부분이 시즌 개막에 맞춰 좋은 몸 상태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올 시즌 저희 팀이 다른 팀에 비해 전력 변화가 많지 않아요. 기존 전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상승세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올 시즌만큼은 꼭 플레이오프 가고 싶습니다.

Q. 어느덧 데뷔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플레이가 예년에 비해 능이 익었다는 호평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연차가 쌓이다보니까 코트를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여유도 생기는 것 같아요. 데뷔 초기 때는 제 스피드를 주체 못해서 그르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언니들께서 그럴 때마다 템포 천천히 하자는 등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해주셨고 덕분에 전보다는 성숙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Q. 경기적인 부분으로 보면 세계선수권대회 맹활약이 신호탄이 된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전 대회와는 다르게 어린 선수들 위주로 멤버가 구성됐기에 걱정 아닌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생각 이상으로 어린 선수들끼리 합이 잘 맞았어요.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요. 저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대회였다고 생각해요.

Q.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예선 첫 경기인 오스트리아 전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세계선수권 데뷔전'이랄 수 있는 오스트리아 경기에서는 양 팀 최다인 11골을 책임져 경기 MVP에 뽑히기도 했고요. 떨리지 않았던가요?

이번 대회에서는 센터백이 아닌 레프트백을 주로 썼는데 언니들 믿고 자신 있게 했어요. 언니들이 '자신 있게 슈팅 때리고 네가 잘하는 걸 하라'고 얘기해주셨거든요. 언니들이 어시스트 해주면 멀리서 슈팅 때리고 또 제 강점인 스피드를 활용해 하나하나 맞춰가는 부분에서 쾌감을 느꼈어요.

Q. 우빛나 선수의 활약과는 별개로 결과적으로 대표팀은 세계선수권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아쉬움이 컸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쉽죠. 오스트리아 첫 경기 때는 1점 차로 져서 더더욱 아쉽고요. 대표팀 선수들이 조금 더 일찍 소집돼 합을 맞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Q. 대표팀과 H리그에서 계속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감도 큼니다. 장차 대표팀을 이끌어 갈 세대로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좋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배워가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표팀에 다시 뽑혀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다면 정말 잘하고 싶어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유럽 선수들과 부딪히며 얻은 점이 많았어요. 그런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 더 노력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떡잎부터 달랐던 돌격대장,
인고의 시간 거쳐 주축으로 성장하다**

Q. 화제를 바꿔 어릴 적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핸드볼 명문 황지정산고 출신이예요. 언제 어떻게 핸드볼을 시작하게 됐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뛰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학교 운동회 계주에 출전하면 항상 1등을 차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체육부장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손금을 보시더니 핸드볼 잘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하.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께서 저를 고득이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어쨌든 그때는 선생님께서 피자도 사주시고 저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핸드볼을 시작하게 됐죠.

Q. 초중고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아 실업 무대에 진출했어요. 핸드볼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꼈을까요.

핸드볼 특유의 스피디한 부분이 저의 빠른 장점과 잘 부합했어요. 또,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몸 싸움이 많잖아요. 그에 따른 부상도 많긴 하지만 격렬하게 부딪히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회 성적도 좋았고 최우수선수상도 자주 타고 하다보니까 가족들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다고 지지해줬어요.

Q. 어릴 때도 지금처럼 활발한 성격이었나요.

네 맞아요. 지금처럼 까불까불거리고 완전 금쪽이었어요. 나이 들면 그래도 좀 성숙해질 줄 알았는데 어디 안 가더라고요. 나이도 차고 있고 밑에 후배들도 계속 들어와서 성숙해져야 할 텐데 걱정이예요.

Q. 성장 과정도 궁금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신장이 작아 윙 포지션을 많이 소화했다고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키가 작아서 라이트 윙을 주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자 키가 갑자기 10cm 이상 자랐어요. 어머니께서도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자라고 힘이 붙으면서 포지션도 백 포지션으로 옮겨갔어요.

Q. 2020년 여자 실업 핸드볼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서울시청에 지명됐어요. 드래프트로 돌아가 당시 가장 먼저 순번이 불렸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요.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영광이었잖아요. 동시에 그동안 고생한 보람과 결실을 얻게 됐죠. 그 순간만큼은 너무 행복했어요.

우빛나 2001년 10월 23일생 / 172cm / 레프트백/센터백 / 황지초·황지중·황지정산고 / 2020년 서울시청-황지정산고 / 2020년 여자 실업 핸드볼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Q. 아마에서의 기대와 평가와는 다르게 알을 깨고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입단 초기에는 부침을 겪기도 했고요. 그에 따른 응고생도 적잖았다고 들었는데요.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주장을 맡았는데 팀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항상 이기는 경기만 하다가 계속 지나가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고 주장을 맡고 있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업팀 입단해서도 1-2년차까지는 운동이 뜻대로 안 되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 피웠던 적도 있어요.

Q.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서 기량을 닦았는지 궁금하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감독님께서 끝까지 지지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잘 버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낮가림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1-2년차까지만 해도 언니들한테 잘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낮가림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고요. 언니들 하는 거 보고 잘 따라했고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Q. 지금의 우빛나가 있기에는 가족들의 뒷받침도 컸을 것 같아요.

제가 4남매 중 막내예요. 큰 언니와는 19살 차이가 날 정도로 나이가 가 꽤 많이 나요. 큰 언니가 엄마쫌(웃음). 가족들이 응원을 많이 해줘요. 제가 막내이기도 하고 운동을 해서 엄마께서 어렸을 때부터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도 항상 경기 때마다 직접 오셔서 응원해주시는데 제가 버틸 수 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털털하고 쾌활한 20대 여자사람”
영락없는 MZ세대**

Q. 경기장 밖 우빛나 선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쉬는 날에는 주로 무얼 하나요.

우선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해요. 바다 보러가고 드라이브 하고 이런 것들이요. 하하. 아 맞다. 최근에는 친구, 가족들과 스포츠몬스터에 4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 성격상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해요. 예를 들어 카페에 가더라도 1시간 이상 못 있어요.

Q. 이쯤 되면 MBTI도 궁금해지는 걸요.

ENFP(재기발랄한 활동가)예요. E랑 I는 반반인데 N은 확실해요. 사실 제가 준비성이 없고 즉흥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Q. 대표팀에서 활약이 리그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팬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인기 실감하시나요.

진짜 실감해요. 매 경기 끝나고 나갈 때 팬들이 기다려주시거든요. 추울 때도 기다려주시고, 버스 떠날 때까지 손 흔들어주시고요. 편지, 선물 등을 바리바리 싸서 주시는데 성의와 관심이 감사할 뿐이죠. SNS 응원메시지도 큰 힘이 되고요. 앞으로 경기장에 더 많이 찾아오실 것 같고, 팬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팬들에게 감사함이 커요.

**달라진 서울시청,
그 중심에는 우빛나가 있다**

Q. 올 시즌부터는 리그가 개편돼 H리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어요. 이전 리그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우선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선수 입장할 때와 소개하는 시간이 따로 마련됐다는 점이에요. 경기를 앞둔 선수 입장에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해요. 리그가 개편됐지만 핸드볼이 인기 종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팬층이 더 두꺼워져야 해요. 선수들 역시도 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야하고요.

Q.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서울시청의 올 시즌 초반 상승세가 무서워요. 우빛나 선수가 본 서울시청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팀원들 모두가 고루 고루 잘 지내요. 감독님께서 특유의 온화함을 바탕으로 팀원들을 이끌어주시고 그 영향을 받아 선수들도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우빛나가 있다고 하자) 아니에요. 저는 아직은 막내 축인걸요. 하하.

Q. 본래 포지션은 센터백이지만 대표팀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레프트백을 소화하기도 해요. 본인에게 더 잘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더 잘 맞는 포지션은 레프트백인 것 같아요. 핸드볼에서 센터백이라는 포지션이 팀원들을 모두 아우르고 책임져야 하는 자리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팀원들을 지시하고 이끌어아가는 게 서툴러



요. 그러다보니 좀 더 공격에서 제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레프트백이 잘 맞는데 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센터백에서 역할도 잘해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팀에서는 센터백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Q. 아직 시즌 극초반이기 때문에 시즌 중후반까지 지금의 성적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 레프트백 포지션에는 왼손잡이가 없고 오른손잡이만 있다보니 그런 부분에서 오는 약점들을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원래 백 포지션 수비가 약점이었는데 (권)한나 언니와 신인 (조)은빈이가 팀에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보강이 됐어요. 포지션 조화가 잘 이뤄졌기 때문에 부상만 조심하면 충분히 지금 분위기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운동할 날이 한참 많이 남아있어요.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롤 모델이 김은아(삼척시청) 언니거든요. 스텝도 너무 좋으시고 빠르고 중거리슛까지 다재다능하시잖아요. 온아 언니처럼 핸드볼 하면 사람들이 하여금 기억될 수 있는 멋진 선수로 남고 싶습니다.

Q. 인터뷰한 소감과 앞으로 각오 한 말씀 전하며 인터뷰 마칠게요.

시즌 초반 팀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이런 인터뷰는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연락 받고 조금 놀랐어요. 인터뷰 사진 촬영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응원해주는 팬들이 많은데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올 시즌에는 꼭 플레이오프까지 갈 수 있도록 남은 시즌에도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 그리고 저 우빛나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

2024 청룡의 해는 나의 것!

용띠 선수들이 전하는 2024년 새해 소원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찾아왔다.
 새해가 찾아올 때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세운다.
 푸른 용의 반아 좋은 활약을 펼칠 용띠 선수들의 새해 소망을
 <핸드볼코리아>가 귀를 쫑긋 세워 들어봤다.
 정리. 서호민 기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부상 없이!”
 김온아(삼척시청) 1988년 9월 6일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한해도 지난 해와 같이 큰 부상 없이 시즌을 잘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삼척시청 팀원들도 모두가 몸 건강히 목표하는 바를 이뤄냈으면 합니다. 핸드볼 팬 여러분도 2024년 갑진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늘 건강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김온아와 삼척시청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남성철(충남도청) 1988년 11월 28일생



2024년 갑진년은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 하는 ‘진’이 만나 청룡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는 1988년 무진년 황룡의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저희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외 여행을 다니며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즐겁고 재밌게 시합을 하면서 승리하는 핸드볼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친지들이 모두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진 풍경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유명 관광지 많이 여행하고요”
 시미즈 아이카(광주도시공사) 2000년 1월 17일생

새해 인사를 드리는 동시에 올해도 여러분께 멋진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은 도전하는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올 시즌 광주도시공사에 입단하면서 감독님, 팀 동료들도 친절하고 풍족한 환경 속에 하루 하루가 신선하고,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중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제 자신이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한국의 유명 관광지를 많이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연습이나 경기를 할 수 있는 환경 등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2024년에도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활 잘 마치고 무사히 복귀하길”
 김진영(인천도시공사) 2000년 2월 2일생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이렇게 팬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2023년에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슬픔보다는 행복만이 가득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3년에는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 올해 우승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는데 안타깝게도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 부상을 당해서 발목 수술을 했습니다. 얼른 재활을 잘 마쳐 올해 복귀하는 것이 제 새해 소망입니다. 더불어 2024년 버킷리스트는 여행을 못 가본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 같아 올해는 해외로 여행을 한번 꼭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H리그 우승한 뒤 넓고 쾌적한 곳으로 여행 가지”
 정미르(SK호크스) 2000년 3월 13일생

지난해에는 대학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2024년 새해에는 SK호크스 팀에 입단해 리그 경기를 준비하고 뛰는 과정들이 너무 좋습니다. 감독님 이하 팀 지원 스태프 그리고 선배 형들 덕분에 경기를 뛰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워 성장의 계단을 밟아 SK호크스가 H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H리그 우승을 하고 휴가를 받아 넓고 쾌적한 곳으로 여행을 가보는 게 목표입니다.



“부상 복구가 우선, 건강한 한해 보내길”
 김태용(상무PI닉스) 2000년 10월 26일생



지난 해 상무에 입대했는데 부상으로 재활에 매진하느라 올 시즌 아직까지 많은 시간을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망은 재활을 무사히 잘 마치고 건강히 코트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적으로는 올 시즌 리그에서 2승 이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주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인생의 버킷리스트인데 그동안 여행을 많이 못 다녀 휴가를 나가게 된다면 짧게라도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첫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간절함”
 윤예진(서울시청) 2000년 11월 3일생

제가 실업 팀 들어온 뒤로 아직까지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가본 적이 없어서 너무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서 2024년 새해에는 부상 선수 없이 꼭 다같이 합심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버킷리스트는 제가 혼밥이나, 나홀로 여행 등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리그를 잘 마무리 한 뒤 혼자서 제주도나 강원도 쪽으로 바다를 보러 여행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께서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서울시청 많이 지켜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주축으로서 매 경기 후회 없게 플레이오프 진출 꼭 이뤄내겠다”
 김지현(광주도시공사) 2000년 11월 23일생



새해 가장 큰 소망은 부상없이 리그를 마무리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저 스스로에게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경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는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합류해 손발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릴 테고 그에 따른 어려운 경기들이 많겠지만 제가 주축이 되어 팀을 이끌어 나가면서 매 경기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심재복이 몽쳐야 찬다에 출연한 이유 그리고 라스트댄스

인천도시공사 베테랑 센터백 심재복이 JTBC 축구 예능프로그램 '몽쳐야 찬다 3'에 출연해 핸드볼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심재복은 특유의 빠른 스피드와 투지 넘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다. 어릴 적 축구선수를 꿈꾸기도 했던 그는 핸드볼 경기장에서만큼이나 축구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물론 몽쳐야 찬다 3에 출연한 데는 핸드볼을 조금이나마 알고자 하는 마음도 담겨있다. 몽쳐야 찬다에 출연한 이야기부터 가족, 핸드볼 인기 그리고 15년 커리어를 돌아보는 시간까지.

3년 1개월 만에 <핸드볼코리아>와 만난 심재복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글. 서호민, 송현일 기자 사진. 유용우 기자



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 '심선수' 축구장에서 다시 달게 된 태극마크

Q. 핸드볼 시즌으로 바쁜 와중에도 <몽쳐야찬다 3> 멤버로 왕성히 활약 중이다. 몽쳐야 찬다에 출연한 계기가 궁금하다.

시즌 초반 숙소에서 쉬는 도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 왔다. 차를 빼달라는 부탁이겠거니 생각해 가벼운 마음으로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JTBC 작가님이라. 곧 <몽쳐야찬다 시즌3> 오디션이 있을 거라며 참가를 제의하셨다. 핸드볼 홍보에도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해 감독님과 상의 후 출연을 결심했다.

Q. 예능 출연은 처음이라 긴장이 됐을 것 같기도 하다. 방송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어필하려고 했나.

듣기로는 시즌1과 시즌2 때는 팀이 성장하는 느낌을 방송에 많이 담아 내고자 했다. 그러는 동안 어느 정도 전력이 갖춰졌으니 이번 시즌은 축

구다운 축구를 하겠다고 하더라. 실제로 팀 훈련 때 템포를 맞추기 정말 버거웠다. 팀을 따라가지 못해 '라인 올려, 라인 내려, 사이드 벌러' 이 세마디만 계속 들었던 것 같다. 중간에 팀에 합류한 입장이다 보니 팀 전술에 적응하기 바빴다. 훈련 강도도 되게 높은 편이라 갈 때마다 체력이 느는 것 같다. H리그 경기 치를 때도 체감할 정도였다.(웃음)

Q. 평소에도 축구를 즐기는 편인지.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정말 좋아했다. 10살 때 본격적으로 핸드볼을 시작한 이후에도 쉬는 날만 되면 동네에서 공을 찼다. 중간에 축구선수로 전향할 뻔한 적도 있다. 중학생 때 친구들과 팀을 꾸려 아마추어 축구 대회에 나갔다. 그 대회에서 부평동중 축구부 지도자께서 축구 해볼 생각 없냐고 먼저 제안하더라. 고민 끝에 어머니께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원래 하던 핸드볼을 계속할 것을 권하셨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 축구가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종목이다 보니 그러신 것 같다. 너무 오래 전일이라 나는 그냥 무덤덤한데 어머니



께서는 아직 마음에 걸리시는지, 이번 <몽쳐야찬다 3> 출연 소식을 들으시고는 예전에 내가 축구 하는 걸 참 좋아했는데 못 시켜준 게 미안하다고 말씀해주셨다.

Q. 장인어른께서도 축구 감독 출신이라던데.

처가에 가면 항상 필수 코스가 있다. 장인어른과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쳐놓고 술잔을 기울인다. 보는 내내 장인어른의 명품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워낙 축구를 좋아하시다 보니 구단이 가진 역사 같은 것도 자세히 알려주신다. 사실 처남도 축구선수 출신인데, 평소엔 말수가 적다가 축구만 틀면 되게 말이 많아진다.(웃음) 이번 <몽쳐야찬다 3> 오디션 준비할 때도 장인어른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 장인어른께 축구장에서 1대1 족집게 과외를 받은 덕에 무사히 오디션을 통과했다. 요즘도 방송이 끝나면 경기 장면을 분석해 피드백 내용을 보내주시곤 한다.

Q. <몽쳐야찬다 3> 컨셉이 '조기축구 A매치'다. 핸드볼이 아닌 타 종목에서 태극마크를 달게 돼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외국 팀과 경기를 앞두고 럭비 한건규 선수가 "왼쪽 어깨를 보라. 태극기가 있다"고 말한 적 있다. 당시 동료들 다 같이 주장 달고 싶어서 카메라 의식해 그렇게 말한 거 아니냐고 놀렸다.(웃음) 그런데 사실 다들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는 것 같다. 정식 대표팀은 아니지만 나라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자부심을 갖고 경기를 치른다. 또 출연진 모두 각 종목 국가대표 출신 아닌가. 평소엔 장난기 많다가도 태극마크만 보면 한없이 진지해지는 사람들이다.

Q. 인천도시공사와 똑같이 등번호 3번을 달고 있다. 이 번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처음부터 그렇게 애정 있는 번호는 아니었다. 3번이라는 게 축구로 치면 풀백처럼 약간 키가 작은 선수들이 주로 쓰지 않나. 사실 나도 처음 이 번호를 달게 된 계기가 초등학교 때 키가 작다고 감독님이 3번 유니폼을 주셨다. 원래는 2번을 달고 싶었다. 소속팀 동료 정수영이나 두산에서 뛰고 있는 정의경 이런 잘하는 형들이 당시 2번을 많이 달았다. 어릴 적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을 좋아해 23번도 선호했다. 어쨌거나 3번이라는 숫자를 계속 달고 뛰다 보니 제일 편하고 익숙한 번호가 됐다. 인천도시공사 신인 시절 23번을 한 번 달았다가 뭔가 어색해 다시 3번으로 돌아왔다. 지금은 등에 3번을 달아야지만 '나라는 사람이 완성되는 것 같다.

Q. 최근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스타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당 종목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방송 출연이 핸드볼을 알리는 데도 작게나마 도움 됐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예능과 다르게 <몽쳐야찬다 3>는 정말 축구만 하다 집으로 귀가한다. 토크라던지 나를 PR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살짝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핸드볼을 많이 알리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적어 아쉽다. 그렇지만 삼척시청 김은아 선수가 <노는 언니>에 출연했을 때는 '온아 효과'가 있었다. 출연자 한 명, 한 명을 많이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시청자들이 김은아라는 사람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이 선수가 하고 있는 핸드볼이라는 종목에도 함께 관심 가진 것 같다. 핸드볼에서도 충분히 방송에서 잘 먹힐 선수들이 많다. 개인적으로 소속 팀 후배 (김)진영이나 (이)요셉이처럼 어리고 잘생긴 선수들이 방송 뿐만 아니라 SNS라던지 미디어에 자주 얼굴을 비추면 팬들도 많이 생기고, 그게 곧 핸드볼 홍보 효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웃음)

**원 클럽맨,
인천의 레전드를 꿈꾸다**

Q. 화제를 바꿔 핸드볼 이야기를 해보자. 남자 대표팀의 아시아선수권대회 참가로 리그가 잠시 중단됐다. 휴식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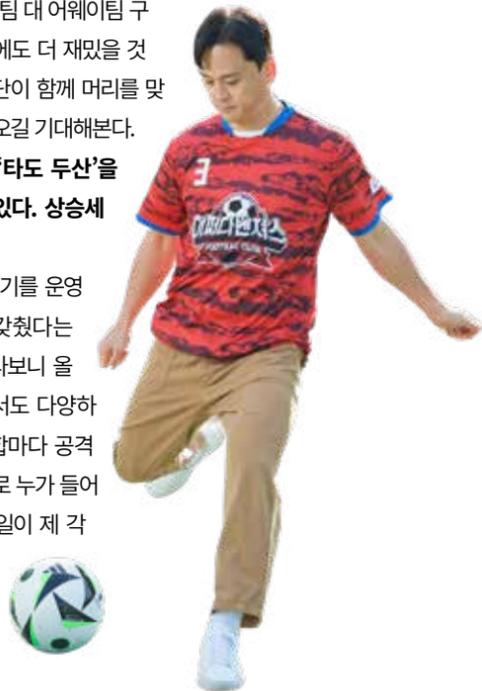
리그 중단 직후 일주일 간 휴가를 받았다. 가족들과 여행도 다녀오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다. 이후로는 삼척, 수원, 익산 등지를 오가며 계속 전지훈련 일정을 소화했다. 시즌 준비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덧 리그 재개가 코앞이다. 순식간에 지나간 한 달이었다.

Q. 리그 명칭이 H리그로 바뀌었다.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을 느낀다면.

H리그 출범 이후 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일례로 경기장에 들어서거나 나올 때 팬들과 하이파이브하는 시간이 생겼다. 경기장 자체도 멋있게 꾸며놓는 등 협회가 프로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진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한 가지 꼽자면 연고지 정착과 관련된 문제다. 남자부 6팀 중 홈구장을 보유한 팀은 인천도시공사, SK호크스, 상무피닉스 단 세 팀뿐이다. 진정한 프로 리그로 거듭나기 위해선 구단마다 홈구장을 보유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지역 시민들도 응원하러 오고 하면서 관중이 더 많아질 것 아닌가. 또한 구단마다 확실하게 연고가 잡히면 경기 때 홈팀 대 어웨이팀 구도가 뚜렷이 형성돼 응원하기에도 더 재밌을 것 같다. 협회 뿐만 아니라 각 구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좋은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Q. 올 시즌 인천도시공사는 '타도 두산'을 외치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상승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예전에는 한 가지 색깔로만 경기를 운영했다면, 올해는 다채로움을 갖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다보니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감독님께서도 다양하게 전술을 짜주셨다. 선수 조합마다 공격 패턴이 모두 다르다. 포지션별로 누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팀 플레이스타일이 제 각



심재복 1987년 11월 27일생 / 177cm / 80kg / 센터백 / 한국체대 졸 / 2011년 인천도시공사 입단 / 2010 광주우아시인계임 클레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동메달

각인데, 상대 맞춤형 전술을 골라 효과적으로 경기를 치르는 게 가능해졌다. 여기에 더해 두꺼워진 선수층도 한 몫하고 있다.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이 다수 합류했다. 감독님께서 자원이 많아 누구를 놓아할지 고민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다.

Q. 다만 최근 남자 대표팀 국제무대 성적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있다. 국제무대를 두루 경험한 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클 것 같은데.

사실 나는 지금 대표팀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돼 경험을 쌓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안영웅(경희대), 송제우(한국체대), 이창우(한국체대) 등은 아직 대학생 아닌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순위가 밀려났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당장 바레인만 봐도 10년 넘게 합을 맞춘 선수들이다. 내가 대표팀 시절 뛰던 선수들이 아직도 그대로 뛰고 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나. 대표팀에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기회를 받는다면 나중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다.

어린 선수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Q. 신인 시절 ‘인천의 심장’이 되겠다고 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인천에서만 15년 재할약하고 있다. 소속 팀에 대한 애정도 클 것 같다.

오랜 시간 한 팀에서만 뛰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다. 팀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희로애락을 함께 했다. 특히 팀에서 막내로 있던 2010년부터 2012년 사이는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던 것 같다. 당시 소속 팀 형들과 유대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는데, 인천에서 뛰는 동안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니었다 싶다. 이 시기에 리그 준우승도 해보고 전국체전 2연패도 달성했다. 가끔 은퇴한 형들과 연락을 하며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Q. 고참으로서 팀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나뿐만 아니라 윤시열, 정수영 등 고참급 선수 모두가 수평적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선배가 강압적으로 후배를 휘어잡는 경

우도 많았다. 지금 우리 팀은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다. 예전엔 속도도 선배 후배가 섞어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비슷한 연차끼리 같이 쓴다. 경기 때 누가 잘못을 하더라도 옛날처럼 선배들이 후배들 집합을 잡는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 코트 안에서 벌어진 일은 코트 안에서 풀고 끝낸다. 이런 와중 후배들도 알아서 엇나감 없이 선배들을 잘 따라줘 상호 존중이 이뤄지고 있다.

Q.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리그에서 여전히 건재한 모습이다. 스스로 몸 관리를 잘하는 비결이 있다면.

체중 한계선을 정해놓고 일정 수준 이상이나 이하로 벗어나지 않게끔 한다. 이를 위해 꾸준히 식단을 챙기고 있다. 나이가 들다 보니 많이 안 먹은 것 같아도 금방 살이 찌더라.(웃음)

Q. 오랜 선수 생활을 이어 오는데 있어 핸드볼 선수 출신 아내의 내조가 큰 도움이 됐다고.

(아내가)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옆에서 많이 배려해준다. 경기에서 좋지 않은 활약을 보인 날에도 항상 잘했다며 나를 위로한다. 또, 핸드볼 선수 출신답게 “오늘은 이런 플레이가 조금 부족했던 거 같다”고 피드백도 해준다. 그리고 예전에는 경기 중에 흥분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나를 채찍질해 바로 잡아줬다. 무엇보다 아내가 옆에서 계속 응원해줘서 은퇴하지 않고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것 같다. 선수로 뭘 때가 제일 맛있고 자랑스럽다고 말해주니 힘이 난다. 나이가 꽤 있는 편임에도 꾸준히 몸을 만들고 경기장에 나서는 이유다.

Q. 원래는 지난 시즌을 마친 뒤 은퇴를 고려하기도 했다던데.

작년에 워낙 부상도 많았고, 심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다는 걸 느껴 은퇴를 고려했다. 정장욱 감독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너 없는 인천은 아직 생각해보진 않았다”며 잡으시더라. 감독님의 그 한마디가 나에게 큰 울림을 줬다. 구단에서도 현역 연장과 관련해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조금 더 달려보기로 결심했다. 인천도시공사 한팀에서 15년 동안 활약하면서 한 가지 못다 이룬 꿈이 있다면 ‘리그 우승 타이틀’이다. 선수로서 활약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모든 걸 쏟아부으려고 한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올 시즌이 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Q. 은퇴 후 행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1순위는 핸드볼 지도자다. 자리가 쉽게 나지 않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핸드볼이 아닌 다른 분야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 거의 28년을 핸드볼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것도 해볼까 고민된다. 어찌됐건 지금은 시즌 중이니 리그에만 집중하고자 한다. 구체적 향후 계획은 추후 좀 더 생각해볼 예정이다.

Q. 훗날 팬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나.

인천도시공사라는 팀하면 항상 ‘심재복’이라는 이름 석자를 떠올렸으면 좋겠다. 은퇴 후에도 팬들이 인천 경기를 보면서 ‘예전에 심재복 선수도 참 열심히 뛰어줬는데’ 그리워 해주길 바란다.(웃음) 핸드볼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올해는 파리다! 한국 여자핸드볼, 세계선수권 성적·성과 분석

한국 여자 핸드볼이 제26회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22위로 마무리했다. 한국은 ‘세대 교체’를 염두에 두고 이번 대회에 나섰다. 그래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앙골라 등 잡을 수 있었던 팀에 일격을 당한 점은 아쉬웠다.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의 세계선수권대회 명암을 되짚어본다.
글.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

제26회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공동 개최)가 프랑스의 통산 세 번째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작년 12월 17일까지 약 3주간 32개국이 자유를 겨룬 가운데 프랑스가 결승에서 개최국 노르웨이를 31대28로 꺾고 2003·2017년에 이어 세 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1978년 7회 대회부터 내리 출전, 20번째 세계선수권대회 무대에 나섰던 한국은 22위를 기록했다. 1957년 창설된 세계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이 20위 밖으로 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물론 한국이 처음 나선 1978년 대회부터 최근까진 12~24개국이 참가했다. 그러다 직전 대회인 2021년 대회부터 참가국수가 32개국으로 늘어 순위가 더 내려간 측면이 있다.

‘세대 교체’ 희망 싹트기 시작

핸드볼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세대 교체 현장으로 삼고자 했다고 한다. 대표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세대 교체를 끝낸 상태에서 2년 정도 손발을 맞춰왔고, 주축이 2526세 선수들”이라며 “반면 우리는 ‘류은희 세대’가 10년 넘게 대표팀을 이끌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세대 교체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표면적인 성적 이면의 성과도 봐야한다는 것이다.



올해 7월 파리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팀은 그동안 유일한 유럽파이자 ‘에이스’ 류은희(34·형가리 교리), 이연경(33·경남개발공사·개명 전 이미경), 김선화(33·삼척시청) 등 팀의 영육과 함께한 30대 베테랑에 의존하는 전술을 구사해 왔다. 여기에 강경민(28·SK슈가글라이더즈), 신은주(31·인천광역시청), 조수연(30·서울시청) 등 팀 ‘허리’들이 가세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세계선수권에 동행한 선수는 이중 류은희, 신은주, 조수연밖에 없었다.

이들이 언제까지나 대표팀과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 헨리크 시그넬(48·스웨덴) 감독은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국제대회 및 대표팀 경험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젊은 ‘뉴 페이스’들을 대거 발탁했고 실전에 투입했다. 그리고 우빛나(23·서울시청), 이혜원(20·부산시설공단), 김세진(19·경남개발공사) 등 ‘젊은 피’들은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세대 교체 희망을 밝혔다.

우빛나는 대회에서 36골을 기록해 류은희(35골)를 넘어 팀 내 최다 득점을 하는 등 신흥 주포로 자리 잡았다. 현재 국내 핸드볼 H리그에서도 득점 1위를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혜원은 같은 라이트백 포지션 선배인 류은희, 김세진은 피벗 선배인 김보은(27·삼척시청)과 함께 훈련하며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대표팀은 “우빛나가 세계 무대에서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 선수들이 국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새로운 선수들의 가능성을 발굴한 건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겨야 하는 팀 잡는 맹수 본능은 되찾아야

세대 교체엔 진통이 뒤따른다. 그동안 손발을 맞춰 왔던 익숙한 멤버들 간 ‘편한’ 방식에서 탈피해야 하고, 다년간의 대표팀 경력에서 오는 배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국이 이번에 충분히 해볼 만 했던 팀에 전반부터 밀리며 끝내 백기를 드는 모습은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한국은 이번 세계선수권 조별리그(C조)에서 강팀 노르웨이·이제겐 패하더라도 비교적 약체인 오스트리아와 그린란드를 잡고 2승1패로 결선 리그에 올라 최소 8강 진출을 노렸다.

그러나 대표팀은 조별리그 1차 오스트리아전에서 옆치러기치러기는 반전을 거듭한 끝에 29대30으로 지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꿴다.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한국은 핸드볼 변방 그린란드를 잡고 1승2패로 간신히 결선 리그에 올랐지만, 슬로베니아(27대31 패)와 프랑스(22대32 패) 그리고 앙골라(31-33)에 무릎을 꿇으며 8강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 대표팀은 “확고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오스트리아에 지면서 초반 분위기가 처졌다”며 “슬로베니아와 앙골라도 우리가 이기고 갔어야 하는 상대인데, 경험 부족에서 드러나는 실수들로 그러지 못한 건 반성해야 한다”고 패인을 짚었다.

이어 “유럽에선 많은 관중들이 들어선 경기장 분위기에 압도되는 경향이 있다”며 “올림픽도 유럽(프랑스)에서 열리는 만큼 선수들이 결정력을 기르고 기죽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7월 열리는 파리 올림픽에선 총 12개국이 시상대에 오르기 위해 경쟁한다. 경기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 올림픽은 경험이나 실력을 하는 곳이 아닌 증명하는 자리다.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 명단은 핸드볼 H리그가 끝난 뒤 5월쯤 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팀은 “여자핸드볼이 (11회 연속) 올림픽(출전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분석하고,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통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





남자핸드볼에 위기가 찾아왔다 세계선수권 ‘물거품’

한국 남자 핸드볼이 위기에 놓였다. 홀란드 프레이타스(포르투갈)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남자핸드볼은 1월 바레인에서 열린 제21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16개 참가국 가운데 5위에 머물렀다.
글. 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아시아선수권서 반등 실패, 프레이타스호에 켜진 경고등

한국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아시아선수권 4강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1월 22일 바레인에서 열린 제21회 아시아선수권대회 9일째 결선 리그 2조 3차전에서 홈팀 바레인에 29-33으로 졌다. 결선리그 성적 2무 1패가 된 한국은 조 3위에 그쳐 2위까지 주는 4강 진출에 실패했고, 2025년 세계선수권 진출 티켓까지 놓쳤다.

성적이 특별히 나빠서 위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직전 아시아선수권인 2022년 대회에서도 5위였고,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도 4강 진출에 실패했던 만큼 이번 아시아선수권 5위는 ‘평년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성적이 나빠 충격을 받은 것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최초로 아시안게임 4강 진출에 실패했을 때로도 충분했다.

한국 남자 핸드볼이 위기인 이유는 당분간 나갈 수 있는 국제 대회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대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 아시아선수권 상위 4개 팀에 주는 2025년 세계선수권 출전권 획득에도 실패했다. 따라서 한국 남자 국가대표 팀은 올해 올림픽, 2025년 세계선수권에 모두 출전할 수 없고, 2026년 아시아

선수권과 아시안게임이 가장 가까운 국제 대회가 됐다.

물론 그 사이에 한일 정기전 등이 열릴 수 있고, 세계선수권에 불참하는 아시아 국가가 생길 경우 대타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등 공식 타이틀이 걸린 국제 대회 출전 기회가 2년 가까이 없게 됐다는 사실은 한국 남자 핸드볼 국가대표 팀에 절망적인 결과다.

특히 한국 남자 핸드볼은 국제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2022년 5월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당시 대한핸드볼협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올림픽을 목표로 외국인 감독 체제를 출범시켰으나 남자 대표팀의 경우 아시안게임 4강 진출 실패, 올림픽 본선행 좌절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게다가 2025년 세계선수권 진출 길까지 막히면서 한국 남자 핸드볼은 2026년까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됐다. 외국인 감독 체제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부터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물론 프레이타스 감독 취임 이후 남자 대표팀의 국제 대회 경기 내용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호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정에 의미를 두기에는 결과가 너무 부진했다.

2022년 9월 한일 정기전 1승 1패, 2023년 1월 세계선수권 32개국 중 28위에 머물렀고 그 뒤로도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 아시

아예선대회, 이번 아시아선수권까지 계속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쳤다. 여자 대표팀의 경우 당장 올해 파리올림픽과 아시아선수권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 체제를 유지할 명분이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일단 이번 아시아선수권 결과를 놓고 보면 다시 한 번 일본의 약진이 눈에 띈다.

지난해 올림픽 예선 대회에서 우승하며 파리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낸 일본은 이번 아시아선수권 4강에서도 바레인을 꺾고 결승에 올라 준우승하는 등 우리보다 한 수 위의 기량을 선보였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올림픽 예선 대회 3-4위전에서 아시아 최강으로 꼽히는 카타르를 꺾었다고 하지만, 당시 3-4위전은 이미 올림픽 본선행이 좌절된 팀들끼리 맞대결로 카타르가 전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기였다.

오히려 당시 일본과 준결승에서 11골 차로 참패를 당하는 등 한국 남자 핸드볼에 켜진 ‘경고등’을 확인한 대회였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남자 핸드볼에 주어진 과제 ‘국제대회 공백기를 발판으로 삼아야’

이제 한국 남자 핸드볼은 뜻하지 않게 주어진 2026년까지 2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세워야 할 때다. 어떻게

보면 2년 가까이 나갈 국제 대회가 없는 지금이 대표팀을 재정비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외국인 감독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젊은 선수들을 키워내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취임 만 2년이 다 돼가는 프레이타스 감독의 경우 지금까지 결과물에 합격점을 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우에도 2018년 선임한 파울루 벤투 감독을 4년간 믿어준 결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력이 급상승한 일본 남자 대표팀은 2017년부터 다구르 시구르드손(아이슬란드)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고 있는 것도 참조할 만하다. 또 아시안게임 바레인, 쿠웨이트전 막판 역전패, 아시아선수권 이라크, 쿠웨이트전 막판 연속 실점에 의한 무승부 등 뒷심 부족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결국 일부 베테랑 선수들을 선발해 신구 조화를 이루거나, 국제 대회 출전 기회가 없는 사이에 외국 팀들과 실전 기회를 만들어 젊은 선수들에게 경험을 쌓게 해주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

한국 남자 핸드볼이 최근 잇따른 국제 대회 성적 부진으로 인해 켜진 ‘경고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더욱 슬기로운 판단이 필요한 때가 됐다. 🙏



‘꿈나무 선수 5명 포진’ 하남동부초, 2023년을 지배하다

‘명문’ 수석어가 잘 어울리는 팀이다. 1981년 창단해 지금까지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거쳐 간 선수들의 이름도 굵직하다. 윤시열, 정수영, 하민호(이상 인천도시공사)부터 하태현(SK호크스), 편의범(충남도청)까지. 모두 이 학교 출신이다. 2023년에는 전국대회 3관왕에 오르기도 한 이곳. 하남 동부초등학교를 <핸드볼코리아>가 찾아갔다.
글. 송현일 기자 사진. 문복주 기자

협회장배, 태백산기 이어 김종하배까지 3관왕 2023년을 자신의 해로 만든다

지난해 동부초의 활약은 눈부셨다. 2월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초등 핸드볼대회 초대 우승팀에 등극했고, 7월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 대회에서는 3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상승세는 연말까지 계속 이어졌다. 12월 유독 연이 없던 김종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에서 드디어 우승을 맛봤다. 동부초는 이 대회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4번의 준우승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개최가 취소된 2020년을 제외 하면 네 해 연속이다. 그러나 2023년은 달랐다. 절치부심한 듯 조별 예선부터 1위를 달리더니 본선에서도 압도적 경기력을 보였다. 특히 8강 진천 상산초와 맞대결이 인상적이었다. 작년 우승팀이자 대회 4연패를 노리던 상대를 19-11로 크게 이겼다. 이후 동부초는 천안서초와의 결승 무대에서도 22-13 압승을 거두며 오랜 염원을 풀었다. 이렇듯 지난해 3관왕을 일궈내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동부초. 이전에

도 해마다 꾸준히 전국대회에서 성적을 냈지만, 2023년은 유독 빛났다. 그 중심에는 ‘꿈나무 선수’가 무려 다섯 명이나 포진한 역대급 선수진이 있었다. 꿈나무 선수란 대한핸드볼협회가 잠재력 있는 유망주를 일찍이 발굴해 육성하고자 마련한 제도로써, 대한핸드볼협회 초등위원회와 체육과학연구소가 12세 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매년 남녀 각 20명씩 선발한다. 지난해 동부초에서는 박지호(CB), 이도훈(GK), 김재준(PV), 김민준(RB), 박유찬(RB)이 그 영광을 누렸다. 이 중에서도 박지호와 이도훈 둘은 특히 빼어난 기량으로 주목을 받았다. 박지호는 ‘큰 육각형’ 센터백이다. 경기를 읽는 눈과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가 좋아 어시스트 능력이 탁월하다. 동시에 팀 내 최고의 골잡이로서도 활약하고 있다. 대전 복수초를 19-11로 이긴 7월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 결승에서는 혼자 10골을 몰아치기도 했다. 심지어 수비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지난 시즌 상대 역습 상황 시 끝까지 따라 공을 다시 가져오는 장면을 수차례 연출했다. 오랜 시간 동부초를 지도해온 김용진 감독 역시 박지호를 “앞으로 대한민국 핸드볼을 대표할 재목이다. 동 나이대 기준 이요셉(상무피닉스)보다도 기량이 좋다”고 꼭 집어 얘기했다. 골문을 든든하게 지킨 이도훈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2023년 한 해 동안 나선 경기에서 방어율 60% 이상을 거듭 기록했다. 30%대가 평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수치다. “중중 하남시청 소속 선수들이 재능 기부 차원에서 동부초 선수들을 봐준다. 4학년 때 이미

주전을 껴찬 이도훈은 재능에 현역 선수들의 지도가 더해져 만들어진 결과”라고 김 감독은 설명했다.

‘기다리는 시간도 가르침의 일부다’ 좋은 선수를 만드는 훌륭한 지도 철학

김용진 감독은 이곳 동부초에서만 20년째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는 베테랑 지도자다. 그 역시도 동부초 출신이다. 졸업 후 그는 남한중, 남한고를 거쳐 2000년 두산에서 선수 생활을 끝맺었다. 그러다 동부초에 2005년 코치로 처음 부임했고, 2016년 감독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모교 후배들을 직접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동부초로 돌아와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고 스스로 밝힐 만큼 모교에 애정이 깊다. 김 감독은 ‘기다릴 줄 아는 지도자’다. 당장 성적에 급급해 선수들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만들지 않는다. 어린 제자들이 여를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 그는 “저학년 선수들은 틀에 얽매인 훈련보다는 스스로 자유롭게 공을 다루게끔 지도한다. 그 과정에서 공과 친해지고 핸드볼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터뷰를 나누는 내내 저학년 선수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 연습을 이어 나갔다. 훈련이라기보다는 ‘공놀이’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각자 원하는 대로 공을 이리저리 튀기며 드리블하고 마음껏 슈팅을 날렸다. 김 감독은 “이처럼 어린 선수들이 자유롭게 공을 갖고 노는 동안 손 감각도 자연스럽게 발달한다”며 “겉으로는 단순히 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기본기를 다지는 중요한 단계”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감독은 본인의 지도 철학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앞서 말했듯 어린 선수들은 정식 훈련에 투입하지 않는다. 공을 갖고 노는 와중 옆에 있는 선배 선수들의 플레이를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게끔 할 뿐이다. 수준 높은 훈련 장면을 가까이서 접하다 보면 절로 호기심이 생긴다. 어느샌가 저학년 선수들은 선배 선수들의 모습을 흉내낸다. 시간이 쌓이면 이들은 따로 지도자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고학년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기량이 갖춰져 있다”면서 “대회 때도 마찬가지다.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저학년 선수들도 항상 동행시킨다. 경기에 나서지 못할지언정 선배들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김 감독은 선수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도자다.

김 감독은 결과로써 본인의 철학을 증명했다. 김 감독의 가르침 아래 동부초는 그야말로 ‘모두가 에이스’인 팀으로 거듭났다. 지난해 3관왕을 거두는 동안 성적도 성적이지만 선수들의 고른 득점 분포가 돋보인다. 팀의 중앙 공격라인을 이루는 박지호, 김재준뿐만 아니라 김민준, 이준수(LW) 등 측면 자원들도 다수 골을 기록했다.

22:13 압승을 거둔 12월 천안서초와의 김중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 대회 결승 맞대결을 살펴보면, 박지호가 6골로 팀 내 득점 선두를 달렸고 김재준과 이준수가 각각 4골로 그 뒤를 받쳤다. 김민준 역시 3골을 넣어 승리에 크게 일조했다. 김 감독은 “대다수 팀이 인재 수급 등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골키퍼, 센터백, 피벗 자리 위주로 스쿼드를 꾸린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에이스 노릇을 하는 게 아닌, 전 포지션이 탄탄해야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상위 레벨로 올라갈수록 측면 자원들의 기량이 중요하다. 동부초 역시 지난해 모든 선수가 주요 득점원으로서 활약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동부초를 강팀으로 만든 비결, 지역연고팀 하남시청과의 연결고리

하남시 소재 핸드볼팀 사이 맺어진 ‘연결고리’ 역시 동부초를 강팀으로 만든 비결 중 하나다. 아무리 명감독이 있다고 한들, 팀에 길러낼 선수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김 감독에 따르면 “동부초 선수 대부분은 졸업 후 바로 옆 남한중, 남한고로 진학한다. 그곳에 올라가서도 이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오랜 시간 함께 다진 팀워크를 앞세워 훌륭한 성적을 거둔다. 그래서 동부초 출신 선수들은 대학 진학 시 경희대, 한국체대 등 명문대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를 본 학부모들이 동부초에 자녀를 믿고 맡기게 되면서 다시금 신규



선수 유입이 이뤄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렇듯 꾸준히 인재가 모여드는 동부초지만, 전혀 고충이 없는 건 아니다. 동부초 역시 최근 학원 체육계가 겪고 있는 저출산 관련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 감독은 “과거 동부초는 전체 학생 수 1,500명에 이르는 큰 학교였다. 반면 지금은 한 학년당 학급 수 서너 개가 고작이다. 모든 학년을 합쳐도 6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다른 학교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전과 달리 우리도 요즘은 학교 외부로 나가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종종 있



SIDE STORY

선배 선수들이 팀을 이끄는 존재라면, 후배 선수들은 팀의 미래다. 장차 동부초에서 맹활약할 핸드볼 꿈나무들을 만나왔다.



“동부초 코치인 아버지를 따라 핸드볼을 시작” 동부초 4학년 조아준(RW)

Q. 언제 핸드볼을 처음 시작했나요?
지난해부터 조금씩 공을 만지고 놀다가 올해 1월 1일부로 본격적인 훈련을 받고 있어요. 선수 출신인 아버지(현 동부초 코치 조정희)를 따라 자연스럽게 핸드볼에 관심 갖게 됐습니다.

Q. 핸드볼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 재밌어요. 슈트를 쓸 때도 즐겁고, 동료들과 같이 밥 먹는 순간도 행복합니다. 핸드볼과 관련한 일이라면 뭐든 좋아요.

Q. 롤모델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아직은 없어요. 다만 아버지께서 평소 기본기부터 잘 갖춰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말씀을 롤모델 삼아 훌륭한 선수로 거듭나고 싶어요.

Q. 앞으로의 포부를 전한다면?
동부초 선수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요. 열심히 연습해서 내년에 꼭 주장까지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프로무대에 데뷔할 것” 동부초 5학년 김다울(RB)

Q. 어떤 계기로 핸드볼을 접하게 됐나요?
교내 핸드볼부가 유명한 건 원래부터 알았어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라 핸드볼에도 관심이 생겨 2022년 6월쯤 입단했습니다. 직접 해보니 공수 전환이 빨라서 엄청 재밌는 것 같아요.

Q.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처음 핸드볼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지금도 열렬히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Q. 감독님은 다들 선수에게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부족한 점도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셔서 실력이 빨리 느는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핸드볼 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나중에 꼭 프로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감독님, 코치님, 부모님 사랑해요!

다”고 밝혔다. 다만 “하남시에서 지원이 내려와 재정적으로는 여유로운 편”이라고도 전했다.

김 감독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을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항상 선생님들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강조한다. 대회장에 가서는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인사하게 시킨다”고 말할 정도로 제자들에게 인품을 중요시한다. 이들이 오래오래 활약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덧붙여 그는 “앞으로도 평생 동부초 선수들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또, 최근 김 감독은 제자들에게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운동부라고 해서 공부를 등한시하던 시절은 옛말이다. 올해부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성적을 받아야만 대회 참가가 가능하다. 늦어도 오후 5시면 훈련을 모두 끝내고 학원에 가라 장려한다”며 선수들을 지적체를 두루 갖춘 인재로 길러내고 있음을 전했다. 김 감독의 바람대로 동부초 선수들의 앞날에 창창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기대한다.☺



220여 명 초등학생들의 즐거운 운동회, 제2회 핸드볼 페스티벌 성료

초등학교 24개 팀, 220여 명의 즐겁고 신나는 운동회 제2회 '핸볼 페스티벌'이 지난 1월 6일 인천광역시 선학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핸드볼 페스티벌에는 전문 학생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들이 참가하여, 남자부, 여자부, 남녀 혼성부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했다. 남자부에는 9개 팀, 여자부에는 6개 팀, 남녀 혼성부에는 9개 팀이 출전해 예선 리그를 거쳐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삼척 등 전국 10개 초등학교에서 참가한 이번 페스티벌에서 학생들은 그동안 쌓아온 팀 호흡을 자랑하며 핸드볼을 즐겼다.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시종일관 밝은 표정이었다. 핸드볼 경기뿐만 아니라 리터러시 존에서 열린 문화 행사(페이스 페인팅, 나만의 응원 도구 제작, 시화 창작, 디지털 핸드볼 체험)도 참여하며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핸드볼은 대한핸드볼협회에서 핸드볼의 저변확대를 위해 변형해 2021년

에 개발한 학교형 스포츠다. 최근 2년 동안 꾸준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핸드볼 강습회를 운영한 결과 쉬운 경기규칙, 안전한 체육 활동, 여학생의 손쉬운 참여 등으로 실제 체육 시간에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50개 초등학교가 체육 시간에 핸드볼을 도입하였다. 제2회 핸드볼 페스티벌은 대한체육회와 대한핸드볼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신한금융그룹의 재정후원을 받아 열렸다. 2023년(SK핸드볼경기장 개최) 1회 행사와 동일하게 '리그&리터러시' 콘셉트로 진행됐다. 대한핸드볼협회 관계자는 "핸볼 보급을 통해 일반 초등학생들이 핸드볼 전문선수로도 전향하고 있어 선수 부족으로 팀 해체 위기에 처해 있는 일부 초등학교 핸드볼팀의 선수 보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리그 1라운드 MVP 이요셉, 베스트팀 SK호크스 시상

상무피닉스의 이요셉이 신한 SOL페이 23-24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MVP로 뽑혔다. 이요셉은 12월 23일 청주 SK호크스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3-24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시상식에서 MVP로 선정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신한카드에서 후원하는 1라운드 MVP는 한국핸드볼연맹이 산정하는 경기력 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플렉스 제정 1라운드 베스트팀으로는 SK호크스가 뽑혔다. 오자왕 한국핸드볼연맹 사무총장은 SK호크스 이일우 단장에게 베스트팀 상패와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경기장 골대 뒤에 설치된 스피드 측정기로 실시간 표출되는 슈팅 속도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캐논슈터에는 SK호크스 하태현이 선정됐다. 하태현은 지난 11월 29일 하남시청과의 경기에서 105km로 이 부문 1위를 기록해 상금 50만 원을 받았다.

한국핸드볼연맹은 앞으로도 매 라운드 남녀부의 라운드 MVP와 베스트팀, 캐논슈터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핸드볼연맹은 이날 경기장을 찾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범석 시장은 "SK호크스가 청주시를 대표하는 팀이므로 시민들과 함께 좋은 성적을 이루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도시공사 선수로 활약했던 이섭과 이학범 선수의 은퇴식도 함께 열렸다.

정강욱 인천도시공사 감독과 하민호 주장은 두 선수의 등번호가 적은 액자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관중들과 함께 은퇴를 축하했다.



한국핸드볼연맹, SR과 스포츠마케팅 업무 협약 체결 ...SRT 이용객에 H리그 입장권 20% 할인

한국핸드볼연맹(KOHA)과 SR이 핸드볼 H리그 흥행과 SRT 관광 활성화를 위해 12월 21일 서울 수서역에서 스포츠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에는 KOHA 오자왕 사무총장과 SR 정연성 영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OHA와 SR은 SRT를 이용해 H리그 경기장을 방문하는 팬들에게 H리그 입장권 20% 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플랫폼 및 인프라를 활용해 양사 홈페이지 및 SNS는 물론, SRT 역사 내 핸드볼 전시, 홍보물 배치 등 열차 이용 고객들에게도 핸드볼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핸드볼 저변 확대에 힘쓰기로 했다. 본 협약은 신한 SOL페이 23-24 핸드볼 H리그부터 즉시 적용된다. 또한 양 기관은 2024년 4월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 예정인 신한 SOL페이 23-24 핸드볼 H리그 챔피언결정전에 SRT 고객을 초청하는 프로모션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핸드볼연맹, 전국 7개 병원과 의료 협약 맺고 선수 등 부상 관리

한국핸드볼연맹은 전국 7개 병원과 H리그 의료 지원 협약을 맺었다. 연맹은 11월 28일 서울 중구 대흥기획에서 한국핸드볼연맹 오자왕 사무총장, 솔병원 나영무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솔병원과 노원삼성정형외과, 서울점프정형외과, 광주수원병원, 인천 대찬병원, 청주 원원정형외과, 포항 닥터존 정형외과는 신한 SOL페이 2023-2024 핸드볼 H리그 공식 지정 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들 7개 병원은 전국 경기장에 의무 인력을 파견해 선수, 관계자, 관중 등 부상자 발생 시 체계적인 스포츠의료시스템을 지원해 안전한 리그 운영을 도울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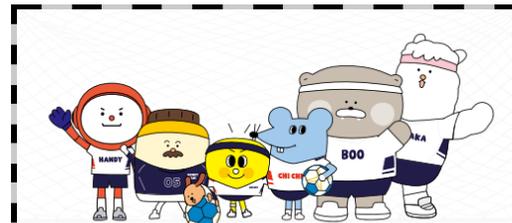


동부초·무안초 우승, 제8회 김중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

대한핸드볼협회가 주최하는 ‘제8회 김중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김중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는 횡성군에 위치한 횡성 국민생활체육센터와 횡성실내체육관에서 남자초등부 16개팀과 여자초등부 13개팀 등 총 29개팀이 경합을 벌였다. 남자부에서는 동부초가 2월 전국초등대회, 7월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에 이어 2023년 세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다. 천안서초를 상대로 전반에 13-5로 압도한 동부초는 후반에도 리드를 놓치지 않으며 22-13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우수선수로는 3골 4도움을 기록한 김민준(동부초)이 선정됐다. 여자부에서는 무안초가 가능초를 14-12로 물리치고 승리를 차지했다. 최우수선수에 선정된 박현진이 6골을 기록하며 팀의 우승을 견인했다. 참고로 이번 우승으로 무안초는 올해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H리그를 이끌어갈 신인선수 인터뷰가 좋았습니다. 푹푹하게 귀여운 선수들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그려졌습니다. 항상 부상 조심하고 핸드볼의 미래를 잘 이끌어가주었으면 합니다. 핸드볼 코리아는 선수 인터뷰나 소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매체라서 참 좋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수들의 진솔하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도서관에서 매번 찾아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인터뷰, 다양한 소식 들려주세요.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파이팅하세요! <송지유>



핸드볼코리아 매거진 발간 중단 안내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핸드볼코리아는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작별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핸드볼코리아는 2010년 7월 창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외 핸드볼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국내 유일 핸드볼 전문지로 자리잡으며 핸드볼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취재했습니다.

핸드볼 현장에서 취재를 통해 다양한 핸드볼 소식을 추적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핸드볼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독자님들과 핸드볼 팬 여러분의 관심덕분에 24년 1/2월호인 68호까지 이어올 수 있었으며

2달에 한번씩 핸드볼 소식을 전달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핸드볼코리아의 발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핸드볼코리아는 여기서 멈추지만 이 외의 다양한 콘텐츠와 방법으로 팬, 가족 여러분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발간된 핸드볼코리아매거진은 대한핸드볼협회 홈페이지(khf.handballkorea.com)내의

핸드볼코리아매거진 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수단을 통해 핸드볼 팬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핸드볼 소식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획할 것입니다.

핸드볼코리아를 아껴주신 핸드볼 가족, 팬,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자연은 담은 깨끗한 물 동원샘물

내몸에 가까워
더욱더 건강한
동원샘물





molten
For the real game

FOREVER. FASTER.



IHF OFFICIAL GAME BALL



[Size3] H3X5001-BW [Size2] H2X5001-BW
Synthetic Leather / Hand Stitched / Latex Bladder

한국 수입, 판매원
☎믹스스포츠
070-4367-1482



ULTRA SHIELD

탄소제로 실천, 어렵지 않아요



건강한 지구를 위해
실천하는 당신이 No.1입니다
 신한카드가 세상의 모든
 작은 No.1을 응원합니다

신한Green Index

친환경 소비자를 위한 국내 최초
카드데이터 기반 탄소배출량 안내

신한카드 ECO Zone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친환경 공원 조성

산림생태계보전 프로젝트

희귀식물 증식, 숲정원 조성 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친환경 자동차 이용고객
편의성 향상 카드 출시

Green 리모델링 지원

노후 건축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참여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30623-Exn-001호(2023.06.23~2024.06.22)